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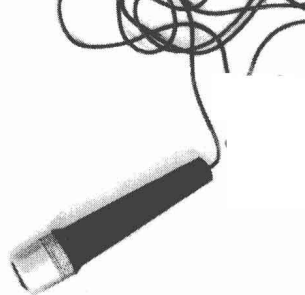
KBS 아나운서와 함께 배우는
한국어 표준 발음
바르게 읽기

KBS 播音员教你掌握 标准韩国语发音

[韩] KBS韩国语研究会 编著
程兰涛 译

世界图书出版公司





KBS播音员教你掌握 标准韩国语发音

KBS 아나운서와 함께 배우는
한국어 표준 발음

[韩] KBS韩国语研究会 编著
程兰涛 译

世界图书出版公司

北京·广州·上海·西安

图书在版编目(CIP)数据

KBS 播音员教你掌握标准韩国语发音 / KBS 韩国语研究会编著. —北京:世界图书出版公司北京公司, 2010. 10

ISBN 978-7-5100-1781-0

I. ①K… II. ①K… III. 朝鲜语—发音—教材
IV. ①H551

中国版本图书馆 CIP 数据核字(2009)第 228494 号

Copyright © 2007, KBS 한국어 연구회(KBS 韩国语研究会)

Chinese simplified print and distribution copyright © 2010

by Beijing World Publishing Corporation

Chinese simplified rights arranged with Korean Broadcasting Publishing Co., Ltd.

through Imprima Korea Agency

All rights reserved

KBS 播音员教你掌握标准韩国语发音

编 著 者: [韩] KBS 韩国语研究会

译 者: 程兰涛

责任编辑: 李玉景

出 版: 世界图书出版公司北京公司

发 行: 世界图书出版公司北京公司

(地址:北京市朝内大街137号 邮编:100010 电话:64077922)

销 售: 各地新华书店和外文书店

印 刷: 三河市国英印务有限公司

开 本: 711mm×1245mm 1/24

印 张: 9.75

字 数: 260千

版 次: 2010年10月第1版 2010年10月第1次印刷

版权登记: 图字 01-2009-4131

ISBN 978-7-5100-1781-0/H·1068 定价: 25.00元(含 MP3 一张)

版权所有 侵权必究

머리말 ●●

아름다운 한국어의 길잡이가 되기를 ...

“저, 내기를 했는데요. [관견]이 맞습니까? [관견]이 맞습니까?”
“요새 아나운서들은 왜 그리 ‘너무너무’를 많이 써요?”

아나운서 사무실에 걸려 오는 하루 수십 통의 언어 상담 전화 가운데 대표적인 유형입니다. 다짜고짜 욕을 하는 사람도 있고, 자신의 지식을 나열하며 이유를 꼬치꼬치 캐묻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더러는 칭찬의 말을 아끼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모두 우리말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서 비롯된 일일 것입니다.

최근 KBS의 ‘우리말 겨루기’, ‘상상 플러스’ 등 우리말을 소재로 한 프로그램이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재미있고 유익해서 자주 시청하는데, 우리말이 얼마나 어렵고 우리가 얼마나 우리말을 모르고 있는지를 다시 확인하게 된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사실 매일 쓰는 말이지만 우리말을 올바르게 쓰는 일은 힘듭니다. 더구나 우리말을 아름답고 멋지게 쓰려면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솔직히 생각해 봅시다. 언어로서의 한국어를 잘 하고자 어떤 일을 했던가요? 아마 국어사전을 찾아 본 것은 초등학교 때의 일이고, 신문 한 장, 책 한 쪽 소리 내어 읽어 본 일은 기억이 없는 사람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한글의 과학성으로 말미암아 한국사람이라면 거의 누구나 우리글을 읽고 쓸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다행한 일입니다. 그런데 읽고 쓰기 쉽다는 것이 곧 우리말이 쉽다는 것으로 오해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발음 법칙에 대해 무신경하고 거기에 예외 조항이라도 이야기하면 “왜 이렇게 복잡해? 그냥 쓰인 대로 읽지.” 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언어는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생성, 소멸합니다. 그런데 불완전하게 배운 초등학교 때의 지식으로 우리말을 재단한다는 것은 얼마나

불합리하고, 어리석은 일입니까? 지금이라도 우리말을 제대로 배워 봅시다. 아니 교과서라도 법칙에 맞게 한번 읽어 봅시다.

『KBS 아나운서와 함께 배우는 한국어 표준 발음 바르게 읽기』는 바로 우리말을 현실에 맞게 바르게 말할 수 있게 도와주는 교재입니다. 지난 1996년에 처음 만들어졌던 『KBS 한국어 표준 발음과 낭독』이 한국어를 배우려는 사람들에게 꾸준히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후 교과서가 많이 바뀌었고 방송 문장도 변해 개편의 필요성을 느껴 이번에 상당한 원고 작업 끝에 새롭게 빛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 책은 크게 문학 작품과 방송 문장, 표준 발음법으로 구성했습니다. 문학 작품은 낭독에 적합한 문장으로 다양한 장르를 고루 골랐고, 구어체의 특징을 보여 주는 방송 문장은 뉴스와 공지 사항, MC 멘트, 바른 말 고운 말 등을 넣었습니다. 아울러 표준 발음법의 각 조항을 ‘-이다. 한다.’ 형태의 문장에서 ‘-입니다. 합니다.’ 형태로 고쳐서 실었습니다. 녹음에 참가한 아나운서는 KBS 전 현직 아나운서로서 각 장르의 전문가로 구성했습니다. 그 중에 방송사에 길이 남을 아나운서의 낭독도 있어 그 가치가 덜하지 않을 것임을 확신합니다.

이 교재가 부디 세계 곳곳에서 한국어를 배우려는 학생들과 우리말을 가르치는 선생님들, 방송을 비롯한 언어 표현 매체에서 일하기를 희망하는 젊은이들에게 길잡이 역할을 하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한국어를 더 아름답게 가꾸는 데 한 줌의 거름이라도 될 수 있다면 이 책을 만든 모든 아나운서들의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2007년 5월

KBS 한국어팀장 유애리

序言 ●●

希望这本书能成为您学好韩国语的领路者……

“啊,我和别人打赌了,是[관견]正确,还是[관견]正确呢?”

“现在的播音员怎么总是用‘너무너무’啊?”

有关语言问题的电话每天都会有数十通打到播音员办公室来,上面是其中比较有代表性的两个。有的人一上来就头没脑地开骂,有的人摆出自己的知识并刨根问底地追问理由,也会有人毫不吝惜溢美之词。他们的行为都出自于对韩国语的关注和热爱。

最近 KBS 的“韩国语擂台”、“想象 plus”等以韩国语为主题的节目非常受观众们的欢迎。很多人说这些节目不仅有趣而且有益,所以经常收看,通过这些节目再次认识到了我们的韩国语有多难,也认识到了我们对韩国语有多无知。

虽然我们每天都在使用韩国语,但正确地使用韩国语却绝非一件易事。并且要想把韩国语说得优美、炫酷是需要下很大工夫的。让我们认真地想一想吧。为了说好韩国语这门语言你做过什么?恐怕大部分人查《国语词典》已经是上小学时的事了,甚至都不记得自己曾经出声读过一张报纸或一页书吧。由于韩文的科学性,几乎所有的韩国人都可以阅读或书写,这真是一件幸运的事。但是有很多人都误以为易读、易写的韩国语十分简单。所以他们从不注意发音规则,并且面对例外的情况,他们就会说:“怎么这么复杂?怎么写就怎么读呗。”

语言是鲜活的。因此它不断地新生、消亡。用小学时学的并不完整知识对国语妄加论断是多么不合理,多么愚蠢啊!哪怕是从现在开始也好,努力学习韩国语吧。就算是按照发音规则读一遍教科书也可以啊。

《KBS 播音员教你掌握标准韩国语发音》就是一本能帮助我们切合实际地、正确地说好韩国语的教材。初编于1996年的《KBS 韩国语

标准发音和朗读》受到了韩国语学习者们始终如一的喜爱。之后,随着教材的改换以及广播文章的变化,我们感到了改编的必要性。这次经过了大量的文稿作业,终于看到了新的曙光。

本书分为文学作品、广播类文章和标准发音法三大部分。“文学作品”是适合朗读的文章类型,其中选取的文章涉及多种体裁;体现口语体特征的“广播类文章”部分包括新闻、公告、主持人台词、优美的语言·正确的语言等内容;“标准发音法”部分将原来各条款“- 이다”、“- 한다”形式的句子改成了“- 입니다”、“- 합니다”的形式。参加录音的播音员都是 KBS 的前、现职播音员,他们是朗读相应体裁文稿的专家。录音材料中有长期在广播局工作的播音员录制的内容,所以我们确信其价值非常之大。

希望这本教材能够为世界各地志在学习韩国语的学生、教授韩国语的老师以及将来在广播等使用语言媒体从事工作的年轻人当好引路人。如果本书能化作一把肥料,使韩国语变得更加优美,那么参与制作本书的所有播音员都将无比欣慰。

2007年5月

KBS韩国语组长 刘爱利

『KBS 아나운서와 함께 배우는 한국어 표준 발음 바르게 읽기』의 본문 낭독자는 KBS 아나운서 여러분이 수고해 주셨습니다.(직함 및 존칭 생략, 가나다 순)

《KBS播音员教你掌握标准韩国语发音》内的文章由KBS诸位播音员朗读。他们(省略职务和尊称,按韩文字母顺序排列)是:

金上俊、金英沼、孟宽永、朴庆姬、朴英雄、朴容虎、朴太男、朴现雨、裴昌馥、安熙宰、尹英美、李圭恒、李明镕、李美善、表永准、洪小然

차례 ●●

目录

머리말	I
序言	III

● 문학 작품 文学作品

논설문 议论文

우리말 살리기	2
독선과 겸손	4
학문의 목적	6

설명문 说明文

웃놀이	9
-----------	---

전기문 传记

만해 한용운(萬海 韓龍雲)	11
----------------------	----

기행문 游记

불국사	13
-----------	----

연설문 演讲稿

나의 소원	16
대지 위에서 일어나는 한국인의 모습	20

서간문 书信

사랑하는 이에게..... 24

소설 小说

원미동 사람들 28
봄·봄 31
로빈슨 크루소 33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36
무지개 39
소나기 41
무진기행(霧津紀行) 44

전래 동화 传统童话

머리 아홉 달린 괴물 48

수필 散文

설 50
신록 예찬 52
독서와 인생 54
달밤 57
인간과 자연 59
페이터의 산문 62

시 诗

어떤 마을 64
유월의 언덕 65
낙화 67
서시 68
진달래꽃 69
회고가 70

● 방송 문장 广播类文章

뉴스 문장 新闻稿

뉴스	72
----------	----

뉴스 해설 新闻评论

작은 희생으로 생명을 구하자	80
-----------------------	----

대담 방송 谈话节目

KBS 〈먼나라 이웃나라〉 ‘사막을 옥토로’ 중에서	86
------------------------------------	----

MC 멘트 主持人台词

정다운 가곡	91
--------------	----

음악 스케치	93
--------------	----

6월에 듣는 통일 노래 한마당	95
------------------------	----

다큐멘터리 纪录片

〈한국의 美〉 ‘옛다리’ 중에서	98
-------------------------	----

앵무새를 살려라	100
----------------	-----

춤추는 꿈을 찾아라	102
------------------	-----

논설문 议论文

방송과 우리말	104
---------------	-----

선언문 宣言文

4·19 선언문	107
----------------	-----

기미독립선언문	111
---------------	-----

공지 사항 公告

공지 사항	113
-------------	-----

날씨 天气预报

날씨 117

바른 말 고운 말 正确的语言·优美的语言

계기와 전기 119
노블레스와 오블리주 121
사이시옷을 붙이는 한자어 123
장이와 쟁이 125
쇠기름과 소기름 127

● **표준 발음법 标准发音法**

표준 발음법 130

● **번역문 参考译文**

文学作品 150
广播类文章 179
标准发音法 202



문학 작품 文学作品

문학은 정서와 사상을 상상의 힘을 빌려 문자로 나타낸 예술의 한 종류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문학 작품을 통해 마음을 살찌우고, 소중하고 풍부한 삶의 지혜도 깨우친다.

정확한 발음으로 낭독하는 문학 작품 속 문장을 주의 깊게 듣고, 따라 읽으며 장르에 따른 낭독의 차이점을 알아 보자.

文学是借助想象的力量，用文字表达情绪和思想的一种艺术形式。因此文学作品可以丰富人们的内心世界，使人们领悟珍贵而丰富多彩的生活智慧。让我们认真聆听并跟读用标准发音朗读的文学作品，试着把握不同体裁作品之间的读法差异吧。

우리말 살리기

우리 민족은 1)우리말을 아끼고 지켜 왔다. 그리고 독창적인 우리 글자
 [우리말] [알따] [글짜]
 를 만들어 사:용하면서 문화를 발전시켜 왔다. 그런데 요즘에는 아름다
 [발전시키]
 운 우리말을 2)살려 쓰지 않고 다른 나라의 말:을 함부로 3)섞어 쓰기 때
 [살려] [안코] [서꺼]
 문에 아름다운 우리말을 4)잃어버리고 있다.
 [이러버리고]

우리 민족은 일본의 5)침:략을 받으면서 하마터면 우리말을 잃어버릴
 [침:나글] [이러버릴]
 뻔한 뼈아픈 기억이 있다. 나라를 되찾고 나서도 일본어 6)날:말을 많:이
 [인따] [난:마를] [마니]
 사:용해 왔다. 그러나 우리말 사랑 운동을 꾸준히 해: 오면서 오늘날에는
 [해:]

일본어 날:말을 섞어 사:용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
 [난:마를] [서꺼] [만:치] [안타]

그런데 요즘에는 영어 날:말을 그대로 받아들여 사:용하는 경
 [난:마를]
 우가 많:다. 우리말에 적절한 날:말이 없:어서 그대로 받아들인 영어
 [만:타] [쩨] [난:마리] [업:써서] [바다드린]

1) “말:”本身应发长音,但根据“在一句话中连续读出两个或三个以上单词时,位于后面的体词不发长音”的规则,“우리말을”中的“말:”不发长音。

2) “살:다”本身应发长音,但根据“原本发长音的谓词干后添加被动或使动后缀时应发短音(参考《标准发音法》第7项)”的规定,“살려”应发为短音。

3) 单收音以及收音“ㄱ”和“ㄷ”后面添加以元音开头的助词、词尾或后缀时,应按原音值发音,并移至下一音节的开头发为其初声(参考《标准发音法》第13项)。这一规定指的是“将收音移至下一音节开头并发为其初声”的“连音规则”,遵循这一规则,“섞어”应读作[서꺼]。

例) 깎아 [까가] 옷이 [오시] 있어 [이씨]

4) 收音“ㅎ(ㅈ, ㅊ)”后面添加元音开头的词尾或后缀时,“ㅎ”不发音(参考《标准发音法》第12项)。遵循这一规则,“잃어버리고”应读作[이러버리고]。

例) 날은 [나은] 않은 [아는] 닳아 [다라] 많이 [마니]

날:말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영어 날:말을 아무 생각 없이 섞어
[난:마른] [난:마를] [서꺼]

쓰는 버릇은 고쳐야 할 것이다. ‘공책’이라는 우리말이 있는데도 ‘노:트’
[인] [노:트]

라고 한다든지, ‘열쇠’를 ‘키:’라고 하는 것은 분명 잘못이다.
[키:] [모시]

우리말에는 아름다운 말:이 많:이 있다. 갸햇빛이 나 있는 날에 잠
[마:나] [해/햇삐치] [인]

깐 오다가 그치는 비는 ‘여우비’, 바닥이 얹알거나 좁아 물살이 세:게 흐르
[얹꺼나]

는 곳은 ‘여울’,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조금씩은 ‘시나브로’라고 한다. 이
[꼬] [끼] [해:]

우리말에는 민족의 얼과 문화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 우리 모두 바른 말,
[일따]

고운 말, 아름다운 말을 살려 쓰는 우리말 지킴이가 되도록 노력해야겠다.
[지킴이] [노려개야겠다]

(2분 24초, 아나운서 홀소연)

5) 在汉字词中,收音“ㄱ”、“ㅇ”后的“ㄹ”发音变为[ㄴ](参考《标准发音法》第19项)。遵循这一规则,“침략”应读作[침:낙]。

例) 강릉 [강능] 대통령 [대:통녕]

6) 初声“ㄴ”、“ㄹ”前的收音“ㄱ(ㄱ, ㅋ, ㆁ, ㄷ, ㄷ, ㄷ, ㄷ), “ㄷ(ㄷ, ㅌ, ㄷ, ㅌ), “ㄷ(ㄷ, ㅌ, ㄷ, ㅌ), “ㄷ(ㄷ, ㅌ, ㄷ, ㅌ)”发音分别变为[ㅇ]、[ㄴ]、[ㄹ](参考《标准发音法》第18项)。这一规定指的是“音韵同化”,遵循这一规则,“날:말을 [난:마를]”中的收音“ㄷ”被“ㄹ”同化,发音变为[ㄴ]。

7) 以“ㄱ”、“ㄷ”、“ㄷ”、“ㅌ”、“ㅌ”为初声的单词前添加“사이시옷”时,原则上只将这些初声发为硬音,但也可将“사이시옷”发为[ㄷ]音(参考《标准发音法》第30项)。遵循这一规则,“햇빛이”可以读作[해삐치/햇삐치]。

8) 收音“ㄱ(ㄱ, ㅋ, ㆁ, ㄷ, ㄷ, ㄷ, ㄷ), “ㄷ(ㄷ, ㅌ, ㄷ, ㅌ), “ㄷ(ㄷ, ㅌ, ㄷ, ㅌ), “ㄷ(ㄷ, ㅌ, ㄷ, ㅌ)”后的初声“ㄱ”、“ㄷ”、“ㄷ”、“ㅌ”、“ㅌ”发为各自对应的硬音(参考《标准发音法》第23项)。遵循这一规则,“알거나”应读作[얹꺼나]。

독선과 겸손

김태길

주장이 뚜렷한 사:람이 드러나 보일 때가 많:다. 망설이거나 조:심스
[뚜려탄] [만:타]
럽게 행동하는 사:람은 드러나기가 어렵다. 따라서, 사:람들은 말:이나
행동에 있어서 확실하고 분명한 태:도를 숭상하고, 단:정적으로 판단하기
를 좋아하며, 자신만만하게 나서기를 서슴지 않는다.
[안는다]

어려운 때를 당한 사:람에게는, 명확하고 분명한 태:도가 귀:중한 미:덕
[명화카고]
임에 틀림이 없:다. 그러나 명확하고 분명한 태:도가 참으로 슬기로운 것이
[업:따] [명화카고]
되기 위해서는, 그 명확하고 분명한 태:도를 취:한 동:기가 순수해:야
하며, 그러한 결단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이 높은 지식과 생각에 의해
[결따네]
뒷:받침 때 있어야 한다. 순수하지 못:한 동:기로 한때의 감:정이나 알
[될:빠침] [모:탄]

1) 收音“ㅁ”中的“ㄱ”在初声“ㄴ”前不发音(参考《标准发音法》第 12 项中的补充 3)。
例) 끊는 [끈는] 알네 [안네]

은 지식, 좁은 관찰에 근거를 두고 경솔하게 결정한 태:도를 옳은 신:념인
[결정한] [옳은]

양 밀:고 나가는 것은 몹:시 위험한 일:이다.

[양] [몹:씨]

깊은 산속에서 길을 잃은 사:람들이 위기를 넘기기 위해서는 신:중함
[산쓰게서] [이른]

과 결단력이 있어야 한다. 그들은 우선 상황 판단을 정:확히 하기 위해 침
[결판너지] [정:화키]

착하고 신:중한 관찰을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안전한 하:산 전:락을
[꺼시다] [절:락]

세우기 위해 서로의 의:견을 교환해야 할 것이다. 되도록 시:야가 넓은 곳
[꺼시다]

에 올라가서 산의 모양과 목적지의 방향을 파악하는 일:이 특히 중:요한
[목적지에] [트키]

것이며, 남의 의:견을 서로 존중함으로써 지혜를 모으는 것도 중:요할
[나메]

것이다. 그리고 일단 결론을 얻:은 다음에는 그 결론을 따라서 주저 없:
[꺼시다] [일판]

이 행동해:야 할 것이다. 당황한 나머지 무모하게 행동을 서두르는 것도
[꺼시다]

위험하지만, 결정을 내리지 못:해 우:왕좌왕하는 가운데 시간을 낭:비하
[결정] [모:태]

는 것은 더욱 위험하다.

(1분 55초, 아나운서 표영준)